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
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 분석



2009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신선영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 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 분석

지도교수 이 경 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신 선 영

신선영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11월



주 심 철 학 박 사 이 희 영 (인)

위 원 철 학 박 사 이 정 화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이 경 화 (인)

목 차

Abstract	i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4
가. 또래지위	4
나. 의사소통능력	5
다. 갈등해결전략	5
II. 이론적 배경	6
1. 또래지위	6
가. 또래지위의 개념	6
나. 또래지위 측정과 분류	8
다. 또래지위별 아동의 특성	11
2. 의사소통능력	13
가. 의사소통능력의 개념	13
나.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	18
다. 또래지위와 의사소통능력	20
3. 갈등해결전략	23
가. 갈등해결전략의 개념	23

나. 갈등해결전략의 유형	25
다. 또래지위와 갈등해결전략	29
III. 연구방법	33
1. 연구대상	33
2. 연구도구	34
가. 사회성 측정검사	34
나. 의사소통능력 검사	35
다. 갈등해결전략 검사	36
3. 연구절차	37
4. 자료처리	38
III. 연구결과	39
1.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39
2.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45
V. 논의 및 결론	49
1. 논의	49
2. 결론	51
참고문헌	52
부록	59

표 목 차

<표 1>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	18
<표 2> 또래지위별 현황	33
<표 3> 또래지위 분류 기준	34
<표 4> 의사소통능력 문항 항목	35
<표 5> 또래 간 갈등해결전략 검사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37
<표 6> 아동의 성별 의사소통능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	39
<표 7> 아동의 또래지위별 의사소통능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	40
<표 8>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이원분산분석	43
<표 9> 아동의 성별 갈등해결전략의 평균 및 표준편차	45
<표 10> 아동의 또래지위별 갈등해결전략의 평균 및 표준편차	46
<표 11>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이원분산분석	47

Analysi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or peer position

Sun-Young Shin

*Educational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difference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or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according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gender and peer position.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was designated to the following questions based on the relating books and the previous researches. First, is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affected by children's gender or peer position? Second, are the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affected by children's gender or peer position?

To verify these question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sixth grade students of Y elementary school in Busan(male:104, female:101) and they performed the sociometric method. Then 114 students(male:56, female:48) were selected as a popular, a rejected, an average assorted by the method of Coie, Dodge and Coppotelli(1982). The students checked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sheet by Lee Seok-jae(1982) and the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sheet by Bae Sun-young(2003). Two-Way ANOVA verified the result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girls are more competent than boys and popular children than rejected ones. The

former can easily understand discourses and communicate verbally or nonverbally what they are intended considering relationships between persons. Moreover, children's peer position have more effective than their gender. Second, regarding the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girls applied the compromising & integrating strategies while boys applied obliging, dominating, and avoiding strategies. Popular children applied he compromising, integrating and obliging strategies compared with rejected children. Also, children's peer position have more effective than their gender.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generally speaking child's peer position is influential in communication competence or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Secondly, child's gender is less influential in communication competence or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Based upon above results, proposal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ie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or peer position are not sufficient so the studies of parental- child communication patterns are common. From now the studies of child-child communication competence are necessary. Second, the studies of a peer position will be performed across according to grades or regions. Third, following studies are necessary in order to verify the causeal structures of variants.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and evaluation method in order to form the health peer relationships for relatively low peer positioned childre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사회와 밀접한 상호 관계를 통해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개인으로 성장해 간다. 특히 인간의 발달과정 중에서 아동기 및 초기 청소년기는 발달 과정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며, 아동의 사회생활이 가족 관계에서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으로 확대되는 시기이다.

아동은 또래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가족 구성원 이외의 타인과의 경험을 갖게 되고, 부모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아가 또래 집단내의 수평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아동은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갈등을 경험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상호 호혜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의 도움 없이 개인적인 독립심을 기르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과 태도를 보다 성숙한 형태로 변화시켜 보다 넓은 사회에서 적응해 갈 수 있는 자질을 습득하게 된다.

Steinberg와 Silverberg(1986)는 아동기 후기에서 초기 청소년기까지 또래지향적인 아동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성인지향적인 아동의 비율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아동은 이 시기 동안, 부모에 대한 의존심을 또래에 대한 의존심으로 대체했다고 할 수 있는데, 초기 청소년기 동안 아동들은 또래의 영향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또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또래관계에 있어 초등 학령기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아동 중기는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을 즐기게 되는 도당시기(gang age)

에 해당하며, 연령이나 취미가 비슷한 또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기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는가에 따라 또는 자기의 지위와 능력 및 역할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경험한다(이병진, 2003).

Campbell과 Cluss(1983)는 아동기에 또래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아동은 이후의 발달적 요구에 대처하는데 문제를 겪게 된다고 하였으며, Parker와 Asher(1987)는 아동기에 또래에 수용되지 못한 경험은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정신 병리, 비행, 범죄 등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즉, 또래집단 내 지위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안정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아동이 특정한 또래지위를 획득하면 아동의 모든 행동이 이러한 지위나 명성의 영향을 받게 되어 동일한 지위가 계속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Hymel, 1986). 따라서, 아동기에 겪게 되는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이후 발달 과정에서 아동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므로 어린 시기의 또래관계는 특히 중요하다.

아동의 또래지위와 관련하여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안재연, 1991; 정영숙, 1992), 부모의 소득 및 학력 등으로 결정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최재숙, 1984; 김혜연, 1986; 박인전, 1994), 부모의 양육태도(김심경, 1997; 박용재, 2003)등과의 관련 연구들이 행해진 바 있다.

아동 개인의 심리·환경적 특성과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성적과 또래지위 상관 연구(Vosk, forehand, Parker & Rickard, 1982; 김진숙, 1983; 박인전, 1994; 박은경, 2000), 아동의 이름이나 신체적 특성과의 관련 연구(안영호, 1982; 황혜정, 2002), 아동의 자아개념과 인기도간의 상관(김기정, 1984; 김기선, 1995; 박희정, 2004)및 성격(장종대, 1997; 윤재원, 1997; 이일호, 2003)과의 관계 연구 등이 있다.

이처럼 또래지위와 관련된 변인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지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의사소통이 효과적일수록 또래들에게 수용되는 정도가 높고, 또래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Girolametto, Weitzman & Greenberg, 2004), 의사소통능력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수단으로써 대인관계의 질적 수준 및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Hasen & Black, 1989)임을 밝힌 일부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아동의 또래지위와 관련된 상호작용의 연구가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Trenholm과 Jensen(2000)는 의사소통능력을 ‘개인적으로는 효과적이며,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인지적 과정에 개입되는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인지적 변인인 의사소통능력을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와 관련하여 측정하면 아동의 성과 또래지위와 관련한 변인들을 보다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하겠다.

한편, Duvall(1965)은 부모와 청소년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능동적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개인에게 수용되고 이해된다는 느낌을 주는 이점을 가지며, 김경희(2002)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갈등관리 대처유형에 미치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이 상호 관련성이 있으며, 이 두 가지 변인들이 또래지위와 상호작용 한다는 사실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또래관계와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또래지위를 분석해 보고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성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아동의 또래지위와 함께 성을 독립변인으로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성이나 또래지위가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들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에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또래지위

또래지위란 교우관계나 학급집단 등을 연구하는 사회 심리학적 방법인 사회 측정법(sociometric method)을 이용하여 또래집단 내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수용, 사회적 선호나, 호감, 또는 배척의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를 통해 평가되는 아동의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한다(정원식, 이상로, 이성진, 1986; 임연진, 이은혜, 1994).

본 연구에서는 Coie, Dodge와 Coppotelli(1982)가 제시한 준거에 따라 배정현(2003)이 제작한 검사지를 사용하여 인기아, 보통아, 배척아의 세 집단

으로 또래지위를 분류하였다.

나.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언어능력 이외에 화자의 뜻을 이해하고, 상황적 조건이나 화자의 이해 여부에 맞게 자신의 표현을 조정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는 언어 이상의 더욱 포괄적인 능력이다(송명자, 1995). Trenholm과 Jensen(2000)에 의하면 ‘개인적으로는 효과적이며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을 성과수행능력(performative competence), 처리 능력(process competence)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처리능력은 해석능력, 목표설정능력, 역할수행능력, 자기제시능력, 메시지전환능력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renholm과 Jensen(2000)의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생애능력 검사도구(이석재, 2003)를 통해 나타난 해석능력, 목표설정능력, 역할수행능력, 자기제시능력, 메시지전환능력의 측정치를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으로 규정하였다.

다. 갈등해결전략

갈등해결전략이란 아동이 친구관계에서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해를 방어하고 고양시키기 위하여 갈등상황에서 상호작용을 성취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Pollard, 1985).

본 연구에서는 Rahim(1985)과 관련 연구(Hammock, Richardson, Pikngton & Utley, 1990)에 근거하여 배선영(2000)이 사용한 갈등해결전략 검사를 통해 얻은 절충 및 협력전략, 회피전략, 양보전략, 지배전략의 네 가지 유형의 측정치로써 아동의 갈등해결전략을 규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또래지위

가. 또래지위의 개념

또래지위란 또래에게 수용 또는 거부되는 정도에 따라 아동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하며 또래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 인기도, 사회측정 지위 등의 용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들의 사회적 환경은 급속히 변하고,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많아진다. 아동은 친구를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방법을 터득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의 가치관과 행동규범을 획득하면서 사회화된다(조복희, 정옥분, 유가호, 1999). 이 시기의 아동은 부모나 교사보다 또래집단으로부터 받는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또래집단의 가치관이 아동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한다(박용현, 1985). 특히 또래집단이라는 관계 속에서 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행동과 태도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키면서 상호 의존, 규칙, 협력, 사회적 요구와 같은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여 집단 속에서 필요한 요령을 습득하게 되어 보다 넓은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질을 기르게 된다(이경우, 서영숙, 1984). 특히,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발달시기에는 또래가 발달의 다른 시기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강문희, 장연집, 정정옥, 2000)

또래와의 경험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발달적 맥락을 구성한다. 이런 맥락 내에서 아동들은 전 생애에 걸쳐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는 기술이나, 태도, 경험들을 획득한다(Rubin & Mills, 1992). 특히 아동기의 또래

관계는 동성 간의 우정과 애정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Sullivan, 1953), 그것은 또래집단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며, 대인간의 친밀감의 욕구가 특히 높은 시기에 친밀감을 제공하는 인물은 같은 성을 가진 또래가 대부분이라는 특징에서 비롯된다.

Howes(1983)는 또래관계를 서로 좋아하고 서로 즐거움을 느끼며 능란한 상호작용을 가지는 전인적 결합이라고 보았으며, 김제한(1999)은 서로 좋아하는 두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쌍방의 사회적 관계로써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대등한 입장에서의 비형식적이고 사회적 공감에 의한 결합이라고 하였다(이호선, 2001). 따라서 아동은 많은 에너지를 또래 집단의 구조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고 다른 사람들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집중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규칙 위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규칙의 감각을 획득하고 또한 또래 집단의 수용에 있어서 이러한 규칙위반의 결과를 이해하게 된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신들의 규칙에 근거하여 친구를 선별적으로 정하게 되고, 유사한 옷을 입고 같은 주제에 관심을 표하고 농담이나 말투 등에서도 동조하려는 경향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때로는 자신과 집단의 행동 기준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면서도 반사회적 행동까지도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Gottman, 1983).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또래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또래 집단 내 지위가 결정되고 안정되기 시작한다(송명자, 1995). 또한 또래지위는 일단 형성되면 집단이 달라져도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Newcomb & Bukowski, 1984), 또래관계와 관련된 연구들(Dodge, 1983; Hymel, Rubin, Rowden, & Lemare, 1990)을 살펴보면 또래 친구들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를 당하는 아동들에게 부적절한 행동 특성이 자주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또래 집단에서 거부를 당하는 아동의 경우는 신체적 공격 행동이나 부정한 수행 문제가 많았고, 또래집단에서 무시를 당

하는 아동은 자긍심과 안정성이 낮고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성 측정법에 의한 아동의 또래 집단 내 수용여부는 이후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Parker & Asher, 1987).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과 또래지위 간의 관련성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나. 또래지위 측정과 분류

또래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또래로부터의 수용 또는 배척을 나타내는 또래 지위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켜왔다. 또래지위란 교우관계나 학급집단 등을 연구하는 사회심리학적 방법인 사회 측정법(sociometric method)을 이용하여 또래집단 내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수용, 사회적 선호나 호감, 또는 배척의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를 통해 평가되는 아동의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한다(임연진, 이은혜, 1994; 정원식, 이상로, 이성진, 1986). 즉, 또래지위는 또래에게 수용 또는 거부되는 정도에 따라 아동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하며 아동기의 또래관계는 이후의 발달 및 정신 건강을 예측하게 해준다. 유사한 용어로 또래 수용성은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특성을 의미하며, 사회적 수용성, 인기도, 사회측정 지위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래지위를 측정하는 보편적 방법으로는 또래 지명법(peer nomination)과 또래 평정법(peer rating)이다. 또래 지명법은 아동으로 하여금 그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 중에서 주어진 선택기준에 적합한 아동을 지명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다. 또래 평정법은 집단에 속한 모든 아동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단계로 평정하는 절차인데, 이때 평정척도는 대체로 3점에서 7점

에 이르는 리커드식 척도이며, 각 아동이 다른 모든 아동으로부터 받은 평정점수의 합 또는 평균에 의해 점수화 된다. 이 방법은 또래 지명법보다 신뢰도 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Asher & Hymel, 1981), 집단의 크기가 클 경우에 실시의 어려움이 있고 평정척도의 공통적인 특성인 단일차원적 성격이 있으므로 또래 지명법처럼 또래 지위 집단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지명을 사용하여 또래지위를 측정하였는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oie, Dodge와 Coppotelli(1982)의 방법으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긍정적·부정적 지명을 통한 이차원 사회성 측정분류에서, 사회적 선호도와 사회적 영향력은 수용과 거부에서 파생된 사회 측정 구성요소로 정의되며 서로 직교하리라 가정한다. 사회적 선호는 상대적인 선호도를 측정하며,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지명 수의 차로 개념화한다.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사람은 그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 반면에, 낮은 사회적 선호도를 가진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시성이라고도 하는 사회적 영향력은 긍정적 지명과 부정적 지명의 수를 더한 것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그 사회 집단에서 매우 눈에 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Cillessen & Bukowski, 2000).

따라서 Coie 등(1982)의 분류서 나온 5개 집단 중 먼저 인기아(popular) 집단은 다수의 또래가 좋아하고, 거의 싫어하지 않는 아동들으로써 높은 사회적 선호를 가진다. 배척아(rejected)집단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낮은 사회적 선호도를 가진다. 양면아(controversial) 집단은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아동들으로써 높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다. 무시아(neglected)집단은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는 지명을 거의 받지 못한 아동들으로써 낮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다. 보통아(average)집단

은 선호나 비선호 모두 평균적인 지명을 받은 아동들이 속한다.

한편 사회성 측정은 인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잠재적 우정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Babad(2001)의 주장처럼, 이차원 사회성 측정을 통한 5개 집단의 인기를 명백하게 정의할 수 없다. 인기가 많음에서 적음으로 향하는 연속체 위에 순위가 매겨진다고 볼 때, 양면아와 무시아의 인기를 정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양면아는 인기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양면아와 무시아는 인기도 차원의 연속체 위에 명확한 위치를 잡을 수 없다(Kosir & Pecjak, 2005).

사회적 수용도 같은 관점으로 언급될 수 있다. 수용과 거부라는 것은 동일 차원의 양 극단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싫어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Bukowski 2000). 두 요인 모두 상호 독립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차원은 구별되는 5개의 사회성 측정 범주에 의해 명시될 수 있는 사회 지위의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지위는 양극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수용과 거부 혹은 사회적 선호와 영향으로써 개념화 될 수 있는 두 차원의 결합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진다. 전통적인 사회성 측정만이 사회적 수용과 거부 혹은 사회적 선호와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Kosir et al., 2005).

물론, 사회성 측정의 제한점도 있다(이주연, 1993). 사회성 측정 결과는 단지 관계를 드러낼 뿐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결과 해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유의해야 하며, 결과에서 나타난 관계는 변화하는 과정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회성 측정 지위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개인 간의 선택의 형태는 가변적이므로 정기적으로 사회성 측정을 실시하여 그 변화의 과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사회성 측정 결과는 대상의 연령, 문화, 사회적, 종교적 배경과 반드시 관련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지명법을 이용하고 아동의 사회성 측정 지위를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oie등(1982)의 방법을 사용하여 5집단으로 분류하고 그중 인기아, 보통아, 배척아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다. 또래지위별 아동의 특성

지금까지 연구된 각각의 사회성 측정 지위에 따른 아동의 특성을 간략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기 아동은 친 사회적 행동을 보이며(이경미, 1991; 임연진, 1999),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빈번하게 참여하고(Dodge, 1983), 사교성이 높다(Cantrell & Prinze, 1985). 또한 유머와 재치가 있고, 명랑하고 활동적이다(Dwmdus, 1993). 타인을 승인한다거나 규칙에 대해 일깨워주고 타인을 설득하며 함께 작업하는 등의 타인을 수용하는 행동 특성을 보이며, 인정 표현과 긍정적 수용행동 특성이 높게 나타난다(김인실, 1993).

배척 아동은 사회성 측정에서 부정적 지명 점수가 높고 긍정적 지명 점수는 낮은 아동을 말한다. 반사회적 행동, 낮은 학업성취, 높은 공격성, 과업 수행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들의 특성을 보이고(Coie et al., 1982), 부적절한 놀이, 적대적인 언어, 또래 배척, 또래 구타 등의 행동을 하며 다른 집단의 아동보다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적다(Dodge, 1983). 배척아동은 인기 아동에 비해 협동 및 자기 표현의 기술이 부족하고(김윤경, 1997), 반항-불신적 성향과(김은정, 2001) 충동성이 높다(윤옥인, 1995).

무시 아동은 다른 아동들이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아동으로 정의되며(Coie et al., 1982), 배척 아동처럼 또래 수용도가 낮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적고, 주로 혼

자 놀이를 한다(Dodge, 1983). 무시 아동은 인기 아동에 비해 자기주장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김윤경, 1997) 고독감을 더 많이 느끼며(최성윤, 2000) 지배성, 사려성, 사회성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류점숙, 김향남, 1989). 학습에 있어서는 인기아에 비해 학습량이 적고, 학업 성취도도 낮으며(김심경, 1997)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임연진, 1994).

양면성 아동은 어떤 아동들은 매우 좋아하고, 어떤 아동들은 매우 싫어하는 아동으로 정의된다. 이들은 인기 아동과 같이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고 수줍음이 적으며 활동적이나(Coie et al., 1982), 공격적 놀이, 적의 있는 말하기, 놀이로부터 또래들을 제외시키는 것 등(Dodge, 1983)은 배척아와 유사한 성격을 나타내는 등 양면적인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인기아와는 다르게 지각되고 있다.

또래 지위별 아동의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기아는 착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친구들을 잘 도와주며, 재미있고 성실하며, 공부를 잘 하고 예체능에서 뛰어난 반면, 배척아들은 친구를 괴롭히고 폭력적이며 욕설, 간섭과 참견을 많이 하며 잘난척하고 이기적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공부를 못하는 특성을 보였다(현인숙, 1999). 부모의 양육방식 및 가정환경에서도 인기아의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애정적, 자율적,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하며(문혁준, 2000), 아동들 역시 그들의 부모를 민주적이며, 덜 권위적이라고 지각한다(김윤경, 1997). 이미라(2000)는 인기 아동이 다른 집단의 아동에 비해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수용 영역에서 자아 지각을 높게 하며 무시 아동이나 거부 아동 간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는 인기 아동은 과잉행동, 방어행동 영역에서 다른 집단의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공격 행동에서는 높은 성향을 나타냈으며, 무시 아동은 위축 행동에서 특히 높았고, 거부 아동은 인기 아동과 무시 아동과의 중간 수준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또래 지위별 아동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인기아, 보통아, 배척아 간에 의사소통 능력 및 갈등해결전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의사소통능력

가. 의사소통능력의 개념

인간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은 인간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화의 과정으로 개인의 인간성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성립시키고, 발전시키고, 보존시키는 수단이 된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Communius’에서 유래되었으며 공동(Common)과 공유(Sharing)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용어가 지니는 본래의 의미에 기초할 때, 의사소통은 함께 느낌을 나누고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공동사회로 만드는 상호 관계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중요한 정신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정경섭, 1993).

서봉연, 유영분, 강길례(2001)는 ‘서로의 생각, 욕구, 희망, 필요 및 의도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수단적 행위’를 의사소통이라고 하였고, 이인숙(1997)은 ‘나눔과 마음의 결합, 공동의 상징 성립을 통해서 상호 간 이해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추석호(1987)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서로의 느낌이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배태영(1986)은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음으로써 공유된 의미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박정은, 이종희, 1999).

이처럼 의사소통의 개념은 의사소통 참여자들 간에 동시적인 상호교환을

통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 과정으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즉 ‘의사소통이란 참여자들 간의 역동적이고 동시적인 상호교환으로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끊임없이 언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동시에 수용하는 상호 복합적인 작용(Sereno & Bodaken, 1975)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소통의 모든 참여자들은 각기 메시지의 전달자인 동시에 수취자일 뿐만 아니라 잠시도 쉬지 않고 말소리 같은 언어적인 반응이나 몸짓, 눈짓, 표정, 어투 같은 비언어적인 반응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형득(1982)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기호(sign)나 상징(symbol)을 통하여 서로 간에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나누어 가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기호나 상징이라는 것은 구체적 내용이 담긴 언어, 말할 때의 음성과 억양, 얼굴 표정, 신체 각 부분의 동작, 그리고 문자나 도형 같이 유기체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이제까지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들은 의사소통의 정의를 다양한 차원과 수준으로 제시하여 왔다. ‘자극에 대한 차별적인 반응’이라는 단순한 정의로부터 ‘상징을 통한 정보, 아이디어, 정서, 기술 등의 전송’, ‘주어진 환경에서 처신할 방향을 잡고 변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 단서들을 조직화하고 변별하는 창의적 활동’이라는 정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들을 주장하였다(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2003).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같은 현상을 표현함에 있어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현상을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장해순, 2003; 허경호, 2003), 이는 의사소통 개념에 대한 광범위한 관점과 학문적 배경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Burton과 Dimbleby(1988)는 의사소통 연구의 세 가지 접근법-과정적 접근

근법, 기호학적 분석법, 문화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의사소통의 의미를 정의하였다(이주행 등, 2005). 과정적 접근에서는 의사소통을 능동적이고 연속적이며 변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간주하면서 의사소통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기호적 접근법은 의사소통을 사람들 간의 신호 교환으로 보면서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신호와 거기서 발생하는 의미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예컨대 타인이 보내는 의사소통의 신호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타인을 인지하는 것이다. 한편 문화 연구 접근은 의사소통이 집단 정체성과 다른 사회에 대해 갖는 관계 측면에 주된 관심을 두고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식을 인정할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용주(2003)는 인간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과 문화를 중시하는 입장의 관점, 그리고 화용론에 기초한 관점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강조점이 달라진다고 설명하였다. 상호작용적 관점에서의 의사소통 개념은 구문적, 의미적, 음운적, 문법적 지식에 대한 규칙들과 언어발달이 강조된 의미이다. 또한 언어를 사회적 상황에서의 문화형식으로 간주하는 인류학적 관점에 기초할 때, 의사소통능력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런가 하면 화용론의 관점에서는 특정 맥락 속에서 문장의 적절성과 화자 간 관계에 중점을 두고 의사소통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의사소통 기능을 사회적 장면에서 연구·해석하고자 하는 사회 언어학적, 화용론적 관점은 의사소통 연구의 최근 경향이라 할 수 있다(주영희, 2000).

장해순(2003)은 언어, 대인, 관계에 각각 초점을 둔 관점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언어적 능력 관점은 구조언어학과 사회언어학의 이론적 가정에 기초함으로써 인간의 언어 능력을 생득적 인성으로 간주한다. 의사소통 능력을 정의함에 있어 인지적 차원에서의 언어사용에 대

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인적 능력 관점은 사회학과 심리학 이론에 기초를 둬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환경통제와 적응능력 및 목적 달성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입장이다. 관계적 능력 관점은 앞의 두 관점을 포괄하는 입장으로 적절성, 협력, 상호작용적 목적 달성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개념을 강조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소통’, ‘의사소통 능력’, 또는 ‘의사소통 기술’의 개념은 매우 복합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합의된 개념을 구성하지 못한 채(이용주, 2003; 허경호, 2003), 연구자 개인의 관점과 학문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대한 제 영역의 관점들은 그 개념 정의와 접근 방법에 다소 차이를 보면서도 공통점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의사소통 능력이 언어 능력 이상의 지식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능력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단어들의 의미 이해와 문법적인 지식을 기초로 언어를 최소한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Burton & Dimbleby, 1988; 이주행 외, 2005, 재인용)을 뜻하는 개념이라면, 의사소통 능력은 사회·문화적 기대를 알고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와 비언어적 형태들을 사용하는 능력으로써 언어 능력과 구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능력 이외에 화자의 뜻을 이해하고, 상황적 조건이나 화자의 이해 여부에 맞게 자신의 표현을 조정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는 언어 이상의 더욱 포괄적인 능력인 것이다(송명자, 1995).

Rubin(1982)과 Spitzberg & Cupach(1989)에 의하면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이 갖는 사회적 속성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 정의가 시사하는 바는 의사소통은 개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며, 의사소통의 내용에 대한 사회적 판

단은 그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 대한 지식은 어떠한 의사소통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부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맥락은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으로서의 물리적 맥락, 문화적 맥락, 사회 심리적 맥락, 시간적 맥락을 포함한다(Devito, 2000).

Trenholm과 Jensen(2000)은 지금까지의 접근과는 다른 의사소통 정의와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의사소통을 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도 특히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인지적 과정에 개입되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모델화하였다. Trenholm과 Jensen은 의사소통이 갖는 주요 특성으로서 기존의 학자들이 주장하였듯이 과정으로서의 의사소통, 인간만이 갖는 활동으로서의 의사소통, 창의적인 활동으로서 의사소통, 환경에 대한 조정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의에 의한 집합적인 활동으로서 의사소통으로 본 것이 특징이다. 이 모델에서 의사소통능력은 개인적으로는 효과적이며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두 가지 하위능력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 수행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성과에 필요한 지식과 인지적 활동으로 구성된 처리 능력이다. 처리능력은 다시 의사소통 관련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능력, 의사소통 목표를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목표설정능력, 사회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 역할수행능력, 자신의 가치 있는 이미지를 드러내 보이는 자기제시능력,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바람직한 관계성을 담은 지적인 메시지를 창출할 수 있는 메시지 전환 능력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Trenholm과 Jensen(2000)이 제시한 모델을 바탕으로 아동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인지적 활동인 처리능력을 의사소통능력으로 규정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나.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

의사소통이란 상호소통의 결과로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참여자들은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언어로 말하고 행동하며, 상호 수용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시켜나가야 한다(Hazen & Black, 1989). 의사소통능력의 내용요소가 무엇인가의 문제는 연구자의 관점 및 각 프로그램의 대상, 성격,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의 내용요소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간의 선행연구(강경자, 1996; 강석순, 2004; 구본용 외, 1994; 김미영, 2000; 이근영, 2000; 이석재 외, 2003; 이양희, 2004; 이창호, 2003; 정호권, 2003; 조순옥, 2001; 홍경자, 1983)들에서 정리하여 제시한 내용과 본 연구에서 고찰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

연구자	구성요소
이형득(1982)	관심기울이기, 의사확인하기, 지각확인하기, 느낌표현하기, 피드백주고받기
변창진, 추석호(1987)	온정표시, 공감, 자기노출
김광은(1992)	경청, 관심기울이기, 공감, 질문, 진실성
오정인(1993)	온정, 공감, 자기노출
구본용 외(1994)	경청, 공감, 수용적 존중, 솔직성, 즉시성, 구체성
박연호(1994)	상호신뢰적인 분위기, 효과적 경청, 피드백
우재현(1994, 1995)	자기내면 이해하기, 자기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기
송미선(1995)	요구, 제안, 감정표현, 주의획득언어, 설명, 질문 확인, 비언어적 시도
안이환, 장현갑(1995)	자기이해와 분석, 자기표현, 적극적 경청,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다루기, 피드백 주고받기, 공감반응

강경자(1996)	표현의 명확성, 경청, 자기노출, 쌍방향 의사소통, 피드백
김선례(1998)	말하는 사람의 느낌지각하기, 말하는 사람의 공감반영하기, 자신의 느낌 지각하기, 자신의 느낌표현하기
연문희, 강진령(2002)	신체적 주의 기울이기, 심리적 주의 기울이기, 구조화, 명료화, 재 진술, 반영, 요약, 직면, 해석, 정보제공, 질문, 자기개방, 나 전달법
허경호(2003)	자기노출, 공감,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타인 지향성, 환경통제력, 집중력,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의도간과, 반응력, 잡음 통제력
김영애(2004)	의사소통의 기본기술 행사하기(듣기, 말하기, 긍정적 상호작용 강화하기) 고급기술 행사하기(역기능 대처방안 찾아내기, 왜곡된 의사소통기술 바르게 익히기,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하기 분노와 갈등 처리, 잘못인식하고 변화하기)
Rogers(1957)	공감, 무조건적 온정과 진실성
Pfiffer & Jones(1974)	쌍방향 의사소통, 경청, 효과적 피드백, 압박감 없는 분위기, 분명한 메시지
Asher, Oden, Gottman(1977)	칭찬주고받기, 비언어적 의사소통, 자기주장을 효율적으로 하기, 감정 말하기, 침묵 조절하기, 요청하기
Trower, Bryant(1978)	인사하기, 경청하고 반응보내기, 질문하기, 자기표출하기, 의견교환하기, 요청하거나 제의하기
Styart 외(1980)	경청, 자신의 바람을 건설적으로 요구하기, 명확하게 선택하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Ladd, Mize(1983)	긍정적으로 제안하기, 우호적으로 질문하기, 놀이상황에 대해 말해주기, 긍정적인 말로 또래 지지하기
Painter(1989)	관심기울이기, 공감하기, 명료화하기, 주장하기, 직면하기, 문제해결하기
Gamer, Martin & Martin(1989)	관심기울이기, 신체행동지각, 경청하기, 의사소통 방해요소 인식, 공감하기, 느낌 표현하기, 공감반응변별하기, 요약하기, 질문하기, 문제해결하기
Hill, O' Brien(1999)	주의집중, 경청, 재 진술, 질문, 감정의 반영
Betancourt(2003)	명료성(상대방의 이름 부르기, 눈 맞추기, 신체 접촉), 유관반응, 거절에 대한 대안 제시하기, 상대유아의 정서 인식하기, 또래집단 가입기술, 갈등해결하기
Santon-Chapman & Tina(2004)	대화 시도하기, 듣고 반응하기, 상대의 이름 부르기, 대화 차례지키기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각의 연구들은 의사소통을 위한 내

용 요소를 다양한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몇 가지 차원들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시하는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같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한 이론에서 제시된 구성요소는 다른 이론에서 제시한 요소들과 완전히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장해순, 2003).

본 연구에서는 Trenholm과 Jensen(2000)이 제시한 해석능력, 목표설정능력, 역할수행능력, 자기제시능력, 메시지전환능력의 5가지 요소를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의 구성 요소로 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 또래지위와 의사소통능력

원만한 대인관계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지각하여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며, 상호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능력은 또래에게 수용되고 인정받는 경험, 혹은 배척되거나 고립되는 경험을 갖게 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또래 간 의사소통능력은 또래지위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또래지위는 또래에게 반응하는 양식 및 지각과 반응에 영향을 준다(Coie & Kupersmidt, 1983).

또래수용도가 높은 유아는 명확하고 응집적이며, 반응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반면, 낮은 유아는 또래의 요구나 제안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도움주거나 제안하기 같은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능력은 유아의 또래 수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Landa, 2005).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유아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과 또래 간 인기도에 관한 탐구를 통해 의사소통의 사회적 측면을 설명하였다(송미선, 1995; 이근영, 1999; 장혜정, 1997; Betancourt, 2003; Black & Logan, 1995; Hazen & Black, 1989). 연구 결과, 인기아는 충분한 설명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며, 다른 유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적절하게 질문하는 등의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반면, 비인기아는 자신이 의도한 대상에게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며, 놀이 친구에게 관심을 끌고루 나누지 못하고, 부적절한 방식의 상호작용 또는 반응적이지 못한 대답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Betancourt(2003)는 인기아가 비인기아에 비해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유아의 이름을 부르고 눈 맞춤을 하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하며, 상대 유아가 한 말에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좀 더 명료하며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였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Dodge와 동료들(1983)의 연구 결과, 인기아는 자신의 흥미를 표현할 때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데 반해, 거부아는 주의 끌기와 방해전략으로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여 인기도에 따라 의사소통 전략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Eisenberg와 Garvey(1981)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기아는 놀이 집단에 들어갈 때 비인기아보다 진행되고 있는 놀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더 활발하게 하는 반면, 비인기아는 자신의 요구와 관심사에 몰두하는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비인기아는 집단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직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여 또래의 선택 폭을 좁히는 반면, 인기아는 상호 이해를 형성하고 공유하는데 필요한 대화기술을 많이 사용하였다(Black, 1992).

Blechman과 Prinz(1994)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대화 스타일을 조사

하였는데,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대화를 방해하는 경향이 강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며, 언어적 공격은 또래 거부의 예측요인이 되었다. 또한 연구 결과, 차례대로 이야기하기, 주제와 관련하여 반응하기, 새로운 반응을 원한다고 제안하기, 의견 차이에 대해 이유 및 대안적인 아이디어 제공하기, 그리고 최소한의 거절을 표현할 줄 아는 아동이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반면 비인기아는 이유나 규칙, 대안제시 없이 불찬성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에 자주 실패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또래관계에서의 낮은 지위, 또래 거부와 같은 부정적 결과는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 때문일 수 있다(Farver 1996).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은 또래 사이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고, 그것은 다시 유아기 동안 문제 행동을 증가시킨다(Mather & Rutherford, 1994). 뿐만 아니라 또래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유아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적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되었다(Howing, Wadarsky, Kurtz, & Gaudin, 1990).

위에서 살펴본바 의사소통을 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적으로 순환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에 대한 경청이 중요하며, 말을 듣는 사람은 처음 말한 사람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정으로서의 의사소통을 고려할 때, 이 상황에 개입된 당사자들이 서로 주어진 메시지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데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 각자의 역할과 의사소통 목표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인지적 발달수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외국어 학습 또는 인

지발달 관련 영역에 관심의 초점이 있었다(이용주, 2003). 또한 어머니-유아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것에 반해, 아동-아동 간, 특히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Trenholm과 Jensen(2000)의 모델을 사용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상대방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해석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3. 갈등해결전략

가. 갈등해결전략의 개념

Shantz(1987)은 인간발달에 관한 모든 주요 이론의 기본은 갈등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 발달에서 갈등의 역할을 강조할 만큼 개인의 발달적 측면에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정선영, 2000, 재인용).

갈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Murray(1968)는 갈등이란 하나의 인간이 둘 이상의 상호 대립하는 행위에 종사하도록 동기가 부여된 상황이라고 정의하였고, Deutsch(1973)는 대인 관계 측면에서 갈등이란 양쪽의 교류에서 한 쪽의 활동이 상대의 활동과 조화되지 않거나, 지장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이 불리하게 여겨질 때 발생하는 사건으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이라고 하였다.

Thomas(1976)는 갈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상대방이 좌절시켰거나 또는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지각할 때 생기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김지현, 2002). Stoner(1978)는 갈등을 희소자원이나 작업 활동을

배분하게 되는 경우 서로 다른 처지, 목표, 가치, 인지 등이 존재 할 때 조직 내의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 간이나 집단 간에 일어나는 대립적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갈등은 관련 분야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행동과학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갈등의 정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는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다른 역할을 수행할 때 경험하는 갈등 즉, 역할갈등(role conflict)과 둘째는 개인 간 혹은 사회 단위 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관련된 것이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갈등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예외일 수 없기에 아동 및 청소년기의 시기에도 이러한 갈등은 빈번히 찾아온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산업 현장이나 조직사회 연구에서 많이 진행되었고, 친밀한 관계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친구관계에서 갈등 해결방식을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이은혜 등, 2000).

일찍부터 또래와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또래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하게 되는데, 갈등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필수적이며, 사회적 기술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은 사회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며(Dunn & Slomkowski, 1992), 또래집단에 성공적으로 개입하고, 친구관계를 형성, 유지(Gottman, 1983)하는데 도움이 된다(박미진, 2001, 재인용).

갈등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갈등 문제, 갈등 행동, 갈등 결과의 일련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과정이다(Vliert, 1977). 갈등 문제는 갈등을 유발시킨 원인으로, 방해나 불일치를 지각하는 인지적인 요소와 반감과 적대심을 갖게 되는 감정적 요소를 포함한다(배선영; 1999). 갈등 행동은 갈등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외적 반응으로 가벼운 의문이나 의의

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부터 언쟁, 폭력 등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나타나며, 자발적이고 전략적인 특성 때문에 갈등해결전략, 갈등 관리라는 용어와 상호교환해서 사용될 수 있다(배선영, 1999). 갈등 결과는 갈등에 참여한 두 개인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시도한 행동의 결과로써, 갈등 당사자들에게 있어 보상과 비용의 종결 상태를 의미한다. 갈등 문제는 사회적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갈등 결과는 어떤 갈등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과정 중 갈등행동 즉 갈등 전략에 중점을 두었다.

갈등은 또한 부정적인 측면만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적절한 처리방식에 의해 사회적 기술이 촉진될 수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제시됨으로써 갈등해결방식 또는 갈등협상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김지현, 2002). 이러한 갈등해결은 친구관계를 유지, 존속하는 데에도 중요하다(collins & Laursen, 1994). 결국 친구관계의 성공여부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 다시 말하면 어떠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다(이희영 · 천태복,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해결전략의 개념을 Pollard가 제시한 ‘친구관계에서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해를 방어하고 고양시키기 위하여 갈등상황에서 상호작용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보고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나. 갈등해결전략의 유형

갈등해결전략의 유형은 여러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면서 점차 발전되었다. Deutsch(1973)는 갈등해결전략을 협력과 경쟁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하지원, 2004, 재인용), 이러한 설명이 너무 이분법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Wilson(1982)과 같은 연구자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회피하기, 해결지향, 맞서기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배선영, 1999, 재인용). 또한 Pruitt(1983)는 갈등 사건에 직면한 개인은 전형적으로 갈등상황으로부터 철회하기, 양보하기, 상호적으로 수용 가능하거나 서로가 만족스러운 일치점 찾기 및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등의 네 가지로 분류되는 전략들 가운데에서 전략을 선택한다고 했다(배선영, 1999).

한편, Blake와 Mouton(1964)은 개인 간 갈등에 대처하는 5가지 스타일의 개념도식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하지원, 2004, 재인용). 이들은 개인 간 갈등해결유형을 강압, 문제해결, 완화, 회피, 타협의 5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강압은 타인의 요구를 적게 반영하고 자신의 요구대로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며, 문제해결은 협력과 조정의 과정으로 문제에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가능한 해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완화는 갈등을 무시하거나 숨기기 위한 순응행동을 말하고, 회피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철회 상태로 갈등 상황에서 물러나거나 벗어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 타협은 각 당사자의 기본 요구를 수용하는 간단한 해결을 말한다.

Thomas와 Kilmann(1974)은 Blake와 Mouton(1964)의 개념적 모델을 근거로 갈등해결 방법을 경쟁, 동조, 타협, 협동, 회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후 Rahim(1986)은 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고 밝히고 자신의 이론적 틀에 따라 갈등해결유형을 새롭게 분류하였다(하지원, 2004).

Rahim(1985)의 갈등해결유형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인지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정도와 타인에 대한 관심정도를 큰 축으로 놓고, 개인의 행동방식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에 따라 대인관계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는 척도(Rahim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II:ROCI-II)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갈등해결전략을 협력형(integrating), 절충형

(compromising), 양보형(ovliging), 지배형(dominating), 회피형(avoiding)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협력형(또는 협조형)은 자신과 상대방의 관심과 이해를 정확히 알려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대안을 도출해 내는 유형으로 문제의 취지가 불명확하거나 복잡한 경우에 매우 적절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양측의 의견을 공동선의 입장에서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양측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켜 줌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려는 유형이다. 따라서, 협력형의 큰 장점은 단편적 측면에서 문제들을 다루기보다는 총체적으로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상반된 의견이 충돌된 상황에서는 문제를 다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둘째, 절충형은 자신과 타인의 공통된 관심분야를 서로 주고받기 위한 대안으로 서로의 입장을 양보하고 외부나 제삼자의 개입, 협상, 또는 표절의 방법을 동원한다. 절충이란 쌍방이 다른 목표를 갖고 있거나 비슷한 힘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잦은 절충은 오히려 우유부단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절충은 민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문제해결의 창조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즉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 양측이 상호교환과 희생을 통해 부분적으로 만족을 취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는 유형이다.

셋째, 양보(또는 순응)형은 타인의 관심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관심부분을 양보 또는 포기하는 방식으로 배려를 해 준 후 무엇인가를 보답 받을 수 있을 때 매우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배려형의 장점은 협동을 가능케 해 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해결방식은 복잡하거나 악화된 문제에 있어서는 부적합하고 중요한 문제점을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일시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보형이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심사는 버려두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상대방의 주장에 따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넷째, 지배형은 자신에 대한 관심은 지나친 반면 타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으로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선호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공적인 권위를 사용하여 복종을 유도하기 때문에 강압형이라고도 불려진다. 지배형은 받아들이기 싫은 해결책이 제시될 때 주로 쓰이며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분위기에서는 부적합하다. 지배형의 장점은 신속성이고 이로 인해 종종 상대방의 분노와 원망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 단점이다. 다시 말해, 지배형이란 경쟁적 관계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압도해 버림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는 유형이다.

다섯째, 회피형은 갈등상태에서 얻게 되는 장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갈등상태에 대처하려 들지도 않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유형은 규칙이나 선례에 따라 갈등상태를 다루어 나가지 못하고 단지 그 상황을 피함으로써 벗어나려 한다. 즉, 갈등문제로부터 물러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마저 무시하는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냉담, 퇴행, 무관심으로 나타나며 문제가 사소한 것이거나 피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될 경우에 적합한 대안이다. 회피는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마저 회피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Rahim(1985)의 갈등해결유형을 바탕으로 절충 및 협력전략, 양보전략, 지배전략, 회피전략으로 나누어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 또래지위와 갈등해결전략

아동이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사용하는 해결전략에 대한 선행 연구를 대상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Caplan, Vespo, Pederson & Hay, 1991; Hay & Ross, 1982)에서는 영아가 놀잇감 분쟁으로 인한 또래 갈등 상황에서 보이는 전략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영아의 행동 전략은 또래를 밀치거나 놀잇감 뺏기와 같은 신체적인 행동과 또래에게 놀잇감을 빌려주는 유화적인 행동으로 대별되었다.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보다 갈등해결전략의 범주가 구별됨을 알 수 있다. Miller와 동료들(1986)은 5, 7세 아동을 대상으로 2명씩 짝을 지어서 놀이 중에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설득 전략(persuasion strategies)과 갈등완화 전략(conflict mitigation strategies)으로 나누어서 관찰하였다. 설득 전략은 또래의 행동을 직접 변화시키거나 이미 개입한 행동을 그만두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 전략이다. 이 전략은 다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강제적인 힘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강도 높은 전략과 보통 전략으로 구분된다. 갈등완화 전략은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사안 무시하기, 저항없이 상대가 원하는 것 하기, 양쪽 모두가 만족하는 활동 제안하기, 그 상황에서 떠나버리기 등이 포함된다.

Eisenberg와 Garvey(1981)는 2.5~5.5세 유아 쌍을 대상으로 이들이 또래 갈등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전략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아들은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단순한 부정, 반대, 이유제시, 대안제시 등의 유보 및 회피의 5가지 언어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간의 갈등해결전략에 대해 살펴본 선행 연구로는 Chung과 Asher(1998)가 가상적인 또래 갈등 상황에서 초등학교 4,

5, 6학년생이 사용하는 전략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전략의 범주는 5가지로서 양쪽 모두가 요구를 조절하는 친사회적 전략, 비우호적인 방식으로 상대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맞서는 적대적/강압적 전략, 자신이 원하는 요구만을 주장하는 독단적 전략, 자신의 이해관계를 포기해 버리는 적극적 전략, 그리고 성인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성인 의존적인 전략이다.

Rose와 Asher(1999)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친구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30개의 가상적인 갈등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갈등해결전략을 조절-절충, 자신의 이해관계 주장, 언어적 공격, 상황 회피, 우정관계의 종결을 위협하는 적대적 전략의 5가지 하위 범주로 나누었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배선영(2000)은 친구관계의 질과 아동의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욕구를 조절하는 절충 및 협력, 갈등을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와의 갈등해결에 있어서 절충 및 협력 전략, 회피전략을 사용할수록 친구관계에서 갈등이 낮고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지배전략을 사용할수록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백인주(1987)는 대체적으로 인기아는 비인기아에 비해 또래간의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협동적이고, 우호적이며 친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높은 반면, 비인기아는 공격적이고 수동적인 해결전략을 사용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하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양진희와 최기영(1996)은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배척아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인간 갈등을 해결하는 기

술에 있어서도 인기아와 고립아 집단보다 한층 더 부정적인 해결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한제인(1994)은 가상의 또래 갈등상황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이 사용하는 전략을 살펴보았는데, 친구가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는 분노 전략, 친구가 왜 화를 내는지 물어보는 등 갈등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침착한 대화 전략,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이에 굴복해 버리는 회피/위축 전략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한 후, 아동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분노 전략은 배척아와 양면성 아동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침착한 대화 전략은 인기아가 가장 많이 사용하며, 회피/위축 전략은 배척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현(2002)은 부모와의 애착안정성과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아버지와의 애착 안정성은 회피전략과 지배전략을 제외한 양보전략과 협력 및 절충전략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은 협력 및 절충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될수록 청소년은 문제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다.

정미현(2002)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이 친구 간에 갈등을 겪을 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친사회적인 갈등해결전략인 절충 및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정선영(2001)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아동은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 회피, 양보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허용적이고 방임적일수록 아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배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희영·천태복(2005)은 중학생이 친구 간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은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회피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연령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회피, 양보 및 지배전략 사용 경향에는 변화가 없으나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협력전략 사용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대학생들은 중고생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이은혜 등(200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희영과 천태복(2005)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아마도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지각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부모의 양육태도이며, 이는 자녀의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처럼 많은 연구들이 아동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아동의 또래 지위에 따른 갈등해결 전략을 연구한 바 있으나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와 관련하여 갈등해결전략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에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Y초등학교 6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초등학교 저학년보다 고학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친구와의 갈등이 아동중기 이후에 현저하게 나타나며(Hartup & Ogawa, 1953),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부산에 소재한 Y초등학교 1개교에 총 209부의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사회성측정검사에 의한 또래지위 분류법(Coie, Dodge & Coppotelli)에 의거하여 인기아 집단, 보통아 집단, 배척아 집단을 추출하여 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의 성별, 또래지위별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또래지위별 현황

구 분	인기아 집단 (%)	보통아 집단 (%)	배척아 집단 (%)	계 (%)
남	20 (47.6)	20 (50)	16 (50)	56 (49.1)
여	22 (52.3)	20 (50)	16 (50)	58 (50.9)
계	42 (24.7)	40 (23.5)	32 (18.8)	114 (100)

2. 연구도구

가. 사회성 측정검사

Coie등(1982)의 긍정적인 또래 지명과 부정적인 또래 지명을 함께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기초로 배정현(2003)이 제작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아동들에게 무기명으로 학급에서 같이 앉고 싶은 친구와 같이 가장 앉고 싶지 않은 친구,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와 생일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친구를 각각 3명씩 쓰도록 한다.

채점은 사회성측정검사에서 또래들로부터 받은 긍정지명(Like Most: LM)의 수와 부정지명(Like Least: LL)을 학급별로 표준화하였다. 이러한 표준화된 점수를 이용하여 LM에서 LL을 뺀 점수를 사회적 선호도(Social Preference: SP) 점수로, LM에서 LL을 합한 점수를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 SI)점수로 계산한다. 이 점수를 이용하여 Coie, Dodge, 및 Coppotelli(1982)의 분류 기준에 의해 또래지위를 분류한 후 인기아, 보통아, 배척아 집단에 해당되는 아동을 추출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표 3> 또래지위 분류 기준

또래지위집단	구 분 조 건		
인기아 집단	SP>1	LM>0	LL<0
보통아 집단	-0.5<SP<0.5		-0.5<SI<0.5
배척아 집단	SP<-1	LM<0	LL>0
* LM : 표준화된 긍정지명 점수		LL : 표준화된 부정지명 점수	
SP : 표준화된 사회적 선호 점수		SI : 표준화된 사회적 영향 점수	

나. 의사소통능력 검사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이석재, 2003)중 초등학생용 진단지를 사용하였다. 생애능력 측정도구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세 영역에서의 진단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진단지만을 사용하였다(부록 II). 위 진단지는 의사소통능력이 작용하는 데 내재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개념화의 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발달적인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의사소통능력 진단지는 해석능력, 역할 수행능력, 자기제시능력, 목표설정능력, 메시지 전환능력의 5개의 능력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지의 문항배점은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 범주를 가진다. 응답자는 범주 중 하나에만 표시하도록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능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의사소통 능력 진단지는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지의 하위 영역별 문항 분석과 문항 번호 및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의사소통능력 문항 항목

의사소통능력	하위요소	문항수	문항 번호	신뢰도 (Cronbach's α)
해석능력	정보수집	7	1, 2, 3*, 4*, 5, 6, 7	.68
	경청	7	8, 9, 10, 11, 12, 13, 14	.61
역할 수행 능력	고정관념적 사고 극복	7	15*, 16*, 17*, 18*, 19*, 20*, 21*	.64
	창의적 의사소통	7	22*, 23*, 24, 25*, 26*, 27 28	.61
자기 제시 능력	자기 드러내기	7	29, 30, 31, 32, 33, 34, 35	.71
목표 설정 능력	주도적 의사소통	7	36, 37, 38, 39, 40, 41, 42	.73
메시지전환 능력	타인관점 이해	7	43, 44, 45, 46, 47, 48, 49	.82

*는 역산문항

다. 갈등해결전략 검사

아동의 또래 간 갈등해결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은혜, 고은주, 오원정의 청소년용 갈등해결전략척도를 배선영(2000)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

게 적절하도록 문항내용을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부록 III). 본 척도는 아동이 상대방과 자신의 욕구 충족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 ‘절충 및 협력’, ‘회피’, ‘양보’, ‘지배’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절충 및 협력전략은 ‘친구와 내가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를 때 서로 조금씩 양보하거나’, ‘친구와 나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방법을 찾는’ 갈등해결전략이고, 회피전략은 ‘친구와 나 사이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서로 다룰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갈등해결전략이다. 또한 양보전략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을 친구 생각에 맞추거나’, ‘친구와 의견충돌이 있을 때 친구가 하고 싶은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갈등해결전략이며, 지배전략은 ‘가능하면 친구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거나’, ‘친구가 내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갈등해결전략이다.

하위척도별 4문항씩 16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 ‘그렇지 않다’는 1점, ‘보통이다’는 2점,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인 5점 평점 척도로 되어 있다. 아동의 또래 간 갈등해결전략 검사에 대한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5>와 같다.

<표 5> 또래 간 갈등해결전략 검사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

요 인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Cronbach's α)
절충 및 협력전략	1, 5, 10, 14	4	.78
회피전략	2, 6, 9, 13	4	.68
양보전략	4, 8, 12, 16	4	.66
지배전략	3, 7, 11, 15	4	.68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사용하는 검사지의 문항내용이나 응답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성 측정검사와 의사소통능력,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예비 검사를 6학년 아동 31명을 대상으로 7월 11일, 12일에 실시하였다. 사회성 측정검사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예비 검사를 1차로, 의사소통능력 검사는 다음 날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요시간은 20~25분 정도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반응을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나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보이는 일부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의사소통능력 검사를 다음 날 실시한 이유는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지의 문항이 다소 많은 관계로 사회성 측정과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을 1차로, 의사소통능력 검사를 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본 검사는 예비 검사를 토대로 7월 21일과 22일에 실시하였으며, 각 반 담임선생님의 주도하에 수업시간에 검사가 실시되었고, 질문지에 응답하기 전에 별도의 유의사항과 바르게 응답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배부된 전체 설문지 209부를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SPSSWIN(12.0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라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전략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성과 또래지위를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의

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를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먼저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측정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6>, <표 7>과 같다.

<표 6> 아동의 성별 의사소통능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집단(n)	M	SD
해석 능력	정보수집	남아(56)	3.14	.43
		여아(58)	3.18	.48
	경청	남아(56)	3.09	.47
		여아(58)	3.21	.52
역할 수행 능력	계	남아(56)	3.12	.39
		여아(58)	3.19	.43
	고정관념	남아(56)	2.16	.66
		사고극복	여아(58)	2.35
	창의적 의사소통	남아(56)	3.06	.42
		여아(58)	3.01	.45
계	남아(56)	2.62	.38	
	여아(58)	2.68	.32	
자기제시능력	남아(56)	3.14	.67	
	여아(58)	3.52	.62	
목표설정능력	남아(56)	3.10	.65	
	여아(58)	3.06	.63	
메시지전환능력	남아(56)	3.11	.79	
	여아(58)	3.36	.62	

<표 7> 아동의 또래지위별 의사소통능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유형	N	M	SD	
해석능력	정보수집	인기아	42	3.30	.48
		보통아	40	3.08	.45
		배척아	32	3.07	.40
	경청	인기아	42	3.32	.50
		보통아	40	3.11	.44
		배척아	32	3.00	.52
역할수행 능력	고정관념적 사고극복	인기아	42	2.27	.72
		보통아	40	2.24	.56
		배척아	32	2.27	.45
	창의적 의사소통	인기아	42	3.13	.48
		보통아	40	2.93	.41
		배척아	32	3.05	.39
자기제시능력	인기아	42	3.56	.62	
	보통아	40	3.26	.67	
	배척아	32	3.13	.65	
목표설정능력	인기아	42	3.24	.55	
	보통아	40	3.08	.67	
	배척아	32	2.86	.67	
메시지전환능력	인기아	42	3.49	.68	
	보통아	40	3.16	.68	
	배척아	32	3.00	.72	

<표 6>에 따르면, 아동의 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에 있어 해석능력의 하위요소인 정보수집은 남아(M=3.14, SD=.43)보다 여아(M=3.18, SD=.48)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청에 있어서도 남아(M=3.09, SD=.47)보다 여아(M=3.29, SD=.52)가 높게 나타났다. 즉, 해석능력에 있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의사소통 관련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우

수하다고 할 수 있다.

역할수행능력의 하위요소인 고정관념사고극복에 있어 남아($M=2.16$, $SD=.66$)보다 여아($M=2.35$, $SD=.51$)가 높게 나타났으며, 창의적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남아($M=3.06$, $SD=.42$)가 여아($M=3.01$, $SD=.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기제시능력에 있어서는 남아($M=3.14$, $SD=.67$)보다 여아($M=3.52$, $SD=.62$)가 높게 나타났으며, 목표설정능력에 있어서는 남아($M=3.10$, $SD=.65$)가 여아($M=3.06$, $SD=.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의사소통에 있어 자신의 가치 있는 이미지를 드러내 보이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메시지전환능력에 있어서는 남아($M=3.11$, $SD=.79$)보다 여아($M=3.36$, $SD=.62$)가 높게 나타났는데, 의사소통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으로 상대방과의 바람직한 관계성을 담은 지적인 메시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에서는 해석능력의 하위요소인 정보 수집은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인기아($M=3.30$, $SD=.48$), 보통아($M=3.09$, $SD=.45$), 배척아($M=3.07$, $SD=.40$)순으로 나타났다. 즉, 인기아가 정보 수집에 있어 의사소통 관련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청에 있어서는 경청은 인기아($M=3.32$, $SD=.50$), 보통아($M=3.11$, $SD=.44$), 배척아($M=3.00$, $SD=.52$)순으로 나타났다. 즉, 인기아가 의사소통에 있어 상대방의 말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환경에 집중하여 경청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다. 아울러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관심을 보이며 간단히 대꾸한다든지, 눈을 맞춘다든지, 자세를 취하는 것과 같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의사소통에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볼 때에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할수행능력의 하위 요소인 고정 관념적 사고극복에서는 인기아

($M=2.27$, $SD=.72$), 배척아($M=2.27$, $SD=.45$), 보통아($M=2.24$, $SD=.56$)순으로 나타났고, 역할수행능력의 하위 요소인 창의적 의사소통에서는 인기아($M=3.13$, $SD=.48$), 배척아($M=3.05$, $SD=.39$), 보통아($M=2.93$, $SD=.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역할수행능력에 있어 인기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제시능력에 있어서는 인기아($M=3.56$, $SD=.62$), 보통아($M=3.26$, $SD=.67$), 배척아($M=3.13$, $SD=.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인기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또래의 관계에 있어 자신의 가치 있는 이미지를 잘 드러내 보이는 능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목표설정능력의 경우 인기아($M=3.24$, $SD=.55$), 보통아($M=3.08$, $SD=.67$), 배척아($M=2.86$, $SD=.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인기아가 의사소통능력에 있어 자신의 목표를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능력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메시지전환능력에 있어 인기아($M=3.49$, $SD=.68$), 보통아($M=3.16$, $SD=.68$), 배척아($M=3.00$, $SD=.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인기아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바람직한 관계성을 담은 지적인 메시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기아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의사소통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인기아는 타인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하여 정서적으로 반응해주며, 또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이원분산분석

구분		SS(Ⅲ)	df	MS	F	p
정 보 수 집	성	.04	1	.04	.214	.644
	또래지위	1.31	2	.66	.3.23	.044
	성*또래지위	.20	2	.10	.50	.607
	오차	21.91	108	.20		
	계	23.48	113			
해 석 능 력	성	.41	1	.41	1.73	.191
	또래지위	1.89	2	.95	4.05	.020
	성*또래지위	.53	2	.27	1.14	.323
	오차	25.25	108	.23		
	계	28.04	113			
계	성	.18	1	.18	1.13	.291
	또래지위	1.55	2	.78	4.91	.009
	성*또래지위	.33	2	.17	1.05	.354
	오차	17.08	108	.16		
	계	19.13	113			
역 할 수 행 능 력	성	.97	1	.97	2.73	.102
	또래지위	.03	2	.02	.04	.960
	성*또래지위	.09	2	.04	.12	.888
	오차	38.16	107	.36		
	계	39.33	112			
창 의 적 의 사 소 통	성	.05	1	.05	.28	.599
	또래지위	.90	2	.45	2.37	.098
	성*또래지위	.24	2	.12	.62	.538
	오차	20.54	108	.19		
	계	21.75	113			
계	성	.10	1	.10	.82	.366
	또래지위	.30	2	.15	1.20	.305
	성*또래지위	.04	2	.02	.17	.844
	오차	13.30	107	.12		
	계	13.75	112			

자기제시 능력	성	4.59	1	4.59	12.15	.001
	또래지위	3.70	2	1.85	4.89	.009
	성*또래지위	2.00	2	1.00	2.65	0.76
	오차	40.78	108	.38		
	계	50.56	113			
목표설정 능력	성	.02	1	.02	.04	.844
	또래지위	2.71	2	1.36	3.52	.033
	성*또래지위	1.89	2	.93	2.40	.095
	오차	41.65	108	.39		
	계	46.25	113			
메시지 전환 능력	성	1.99	1	1.99	4.28	.041
	또래지위	4.46	2	2.23	4.81	.010
	성*또래지위	1.73	2	.87	1.87	.160
	오차	50.10	108	.46		
	계	58.12	113			

<표 8>에 따르면 해석능력 중 정보수집에서는 또래지위가($F=3.23$, $p<.05$), 경청에서도 또래지위($F=4.05$, $p<.05$)가 의사소통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석능력($F=4.91$, $p<.01$)에 있어 또래지위가 주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석능력에 있어 아동의 성과 또래지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수행능력에서는 아동의 성과 또래지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아동의 성과 또래지위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제시능력에서는 아동의 성($F=12.15$, $p<.01$)과 또래지위($F=4.89$, $p<.01$)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제시능력에 있어 아동의 성과 또래지위가 주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표설정능력에서도 아동의 또래지위($F=3.52$, $p<0.5$)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설정능력에 있어 아동의 또래지위가 주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전환능력은 아동의 성($F=4.28$, $p<0.5$)과 또래지위($F=4.81$, $p<.05$)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의 성과 또래지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메시지 전환능력에 있어 아동의 성과 또래지위가 주효과가 있으나 성과 또래지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별 갈등해결전략의 측정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9>, <표 10>와 같다.

<표 9> 아동의 성별 갈등해결전략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집단(n)	M	SD
절충 및 협력	남아(56)	3.32	.76
	여아(58)	3.49	.77
회피	남아(56)	3.32	.75
	여아(58)	3.26	.69
양보	남아(56)	3.04	.70
	여아(58)	2.90	.73
지배	남아(56)	2.92	.69
	여아(58)	2.78	.72

<표 10> 아동의 또래지위별 갈등해결전략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유형	N	평균	SD
절충 및 협력	인기아	42	3.64	.76
	보통아	40	3.25	.65
	배척아	32	3.23	.91
회피전략	인기아	42	2.99	.78
	보통아	40	3.31	.61
	배척아	32	3.50	.69
양보전략	인기아	42	3.05	.75
	보통아	40	2.86	.64
	배척아	32	3.00	.78
지배전략	인기아	42	3.07	.63
	보통아	40	2.73	.79
	배척아	32	2.71	.64

<표 9>에 의하면, 절충 및 협력전략에서 남아(M=3.32, SD=.76)보다 여아(M=3.49, SD=.77)가 높게 나타났으며, 회피전략에서는 남아(M=3.32, SD=.75)가 여아(M=3.26, SD=.69)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보전략에서도 남아(M=3.04, SD=.70)가 여아(M=2.90, SD=.7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배전략에서도 남아(M=2.92, SD=.69)가 여아(M=2.78, SD=.72)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친구 간의 갈등상황에서 회피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표 10>에 의하면,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에서 절충 및 협력은 인기아(M=3.64, SD=.76), 보통아(M=3.25, SD=.65), 배척아(M=3.23, SD=.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인기아가 친구 간 갈등 해결에 있어서 자신과 상대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절충 및 협력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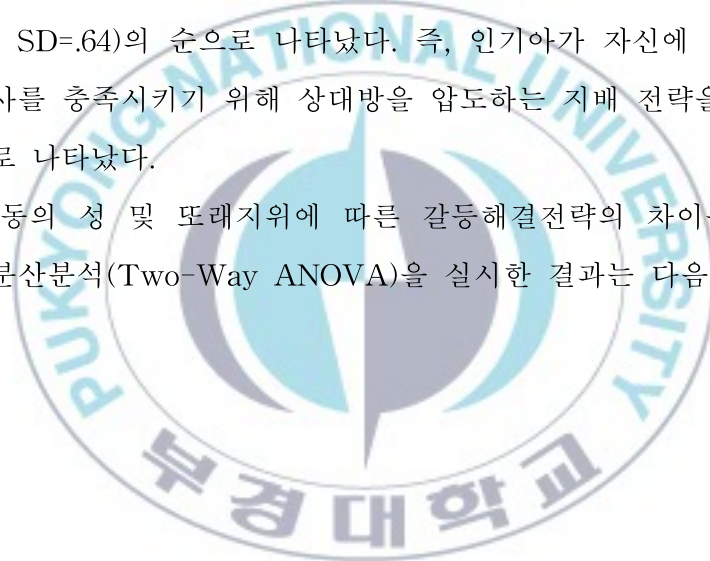
회피전략에서는 배척아(M=3.50, SD=.69), 보통아(M=3.31, SD=.61), 인기아(M=2.99, SD=.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배척아가 자신과 상대방 모두

의 욕구 충족에 관심이 낮고 이를 피함으로써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마저 무시하는 회피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보전략에 있어서는 인기아($M=3.05$, $SD=.75$), 배척아($M=3.00$, $SD=.78$), 보통아($M=2.86$, $SD=.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인기아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심사는 버려두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양보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배전략에서는 인기아($M=3.07$, $SD=.63$), 보통아($M=2.73$, $SD=.79$), 배척아($M=2.71$, $SD=.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인기아가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압도하는 지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이원분산분석

구분		SS(Ⅲ)	df	MS	F	p
절충 및 협력전략	성	1.24	1	1.24	2.30	.133
	또래지위	3.90	2	1.95	3.61	.031
	성*또래지위	3.28	2	1.64	3.03	.053
	오차	57.84	107	.54		
	계	65.65	112			
회피전략	성	.03	1	.03	.06	.812
	또래지위	4.85	2	2.43	5.19	.007
	성*또래지위	2.14	2	1.07	2.28	.107
	오차	50.50	108			
	계	57.45	113			
양보전략	성	.43	1	.43	.83	.365
	또래지위	.78	2	.39	.76	.472
	성*또래지위	.81	2	.41	.79	.458
	오차	55.64	108	.52		
	계	57.77	113			
지배전략	성	.43	1	.43	.90	.345
	또래지위	3.21	2	1.60	3.38	.038
	성*또래지위	1.57	2	.79	1.66	.195
	오차	51.25	108	.48		
	계	56.58	113			

<표 11>에 따르면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은 또래지위($F=3.61$, $p<.05$)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전략에서도 또래지위($F=5.19$, $p<.01$)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충 및 협력전략과 회피전략에 있어 또래지위가 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과 또래지위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동의 지배전략에 있어 또래지위($F=3.38$, $p<.05$)가 주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고, 성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과 또래 지위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에 있어 절충 및 협력 전략, 회피전략, 지배전략에 있어서는 또래지위가 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에 따른 효과와 아동의 성과 또래지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최근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왕따’,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속출되고 있고, 아동기에 겪게 되는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에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지향적인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아동기 후기에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라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에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문제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Y초등학교 6학년 아동 209명(남자:108명, 여자: 101명)을 대상으로 사회성측정 검사를 실시한 후 Coie, Dodge와 Coppotelli(1982)의 분류방법에 따라 인기아, 보통아, 배척아, 총 114(남: 56명, 여 48명)을 선정하여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검사지(이석재, 2003)와 갈등해결전략 검사지(배선영, 2003)를 사용하여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과의 차이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에 있어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또한 인기아가 배척아보다 상대방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성과 또래지위가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는 또래지위가 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에 있어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절충 및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남아는 여아에 비해 회피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지위 별로는 인기아가 배척아에 비해 절충 및 협력전략, 양보전략, 지배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배선영(1999)의 갈등해결 방식의 성차에 대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서로 협력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래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차이는 김표선(2003)의 연구에 따르면 인기아가 자신과 상대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절충 및 협력전략과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압도하는 지배전략을 사용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지위가 높은 아동이 갈등상황 동안 더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며, 또래지위가 낮은 아동은 부정적 정서와 중립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다는 Putallaz(1983)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이는, 화를 내는 분노전략은 배척아동이, 침착한 대화전략은 인기아동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전략은 배척아동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제인(199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아동의 성과 또래지위가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는 아동의 성보다 또래지위가 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 론

본 연구에서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전략의 분석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볼 때 또래관계에서 아동이 얻는 또래지위는 아동의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만든다.

둘째, 전반적으로 볼 때 아동의 성은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전략에 의미있는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라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연구들이 미흡한 상황으로, 의사소통능력에 관련된 연구들은 부모-아동 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향후 아동-아동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또래지위는 학년 및 지역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회적·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향후에는 다양한 지역과 학년의 횡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아동의 성 및 또래지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인과적 구조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낮은 또래지위에 있는 아동이 보다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의사소통능력과 또래와의 갈등해결전략의 긍정적 개선을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평가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 강경자(1996).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문희, 장연집, 정정옥(2000). 아동 정신건강, 서울: 정민사.
- 강석순(2004). 공감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분용, 구혜영, 이명우(1994).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재단법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명신(2003). 집중적, 분산적으로 실시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Thomas Gordon의 효율성 훈련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00). 의사소통훈련이 중학생의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성(1998). 교육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김선경(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경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심경(1997). 아동기 배척아와 인정아의 가정환경,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1997). 인기, 무시, 배척집단의 사회 기술 및 부모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표선(2003). 아동의 또래지위와 우정의 질 및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은정(1996).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만족도와 청소년의 인성특성. 경상

- 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전(1989). 아동의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새마을지역개발연구, 10, 174-186.
- 박용재(2004). 또래집단에서의 인기도 차이연구.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선영(1999).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현(2003).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의 차이.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미(1998). 유아의 인기도에 따른 의사소통기술과 친사회적 행동기술의 차이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7(1), 270-282.
- 손승희(2001).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또래유능성.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1995). 잠재적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가 상담의 효율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선(1994). 놀이개입 상황에 있어서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른 사회적 행동과 의사소통 기술.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정이, 임지영(2002). 외톨이 초등학생의 심리적 특성 연구. 초등교육연구, 16(1), 365-378.
- 윤진(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 사회심리학 연구, 2(1), 94-113.
- 이경우, 서영숙(1984). 유아를 위한 사회교육, 서울: 교문사.
- 이근영(1999). 또래 간 상호작용 유형과 인기도에 따른 유아의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진(2003). 초등교육학개론, 서울: 문음사.

- 이석재 · 장유경 · 이헌남 · 박광엽(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양희(2004). 의사소통 능력이 초등학생의 인간관계와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 유효순, 이정옥(2001), 유아사회교육, 서울: 교문사.
- 이용주(2003).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3), 273-293.
- 이창호(2003). 의사소통능력 향상프로그램 개발.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선(2001).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 · 천태복(2005). 학년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 갈등해결전략. 수산해양교육연구, 17(2), 228-239.
- 임연진(1994).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아지각.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해순(2003). 갈등관리전략에 대한 상호인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혜정(1997). 유아의 또래 간 인기도와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문제 해결력과의 관계.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호권(2003).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인간관계 및 사회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영(1992).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국민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순옥(2001). 유아의 사회극놀이 수준과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복희, 정옥분, 유가호(1999).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 조은주(2005).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대인간 갈등해결방식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제인(1994). 아동의 사회측정 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따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주연(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체계가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경자(1983). 의사소통기술 훈련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5, 97-125.
- Asher, S. R., Hymel, S., & Renshaw, P. D. (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 Babad, E. (2001). On the conception and measurement of popularity: More facts and some straight conclusion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5, 3-30.
- Brown, B. B.(1990). Peer groups and peer cultures. In S. S. Feldman & G.R. Ellio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171-196).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 Cillessen, A. N. & Bukowski, W. M. (2000). Conceptualizng and measuring peer acceptance and rejection, In: A. H. N. Cillessen & W. M. Bukowski(Eds.) *Recent advances in the measurement of acceptance and rejection in the peer system*(3-10).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oie, J. D., & Pennington, B. F. (1976). Children's perceptions of

- deviance and disorder. *Child Development*, 47, 400-413.
- Coie, J. D., Dodge, K. A., Kupersmidt, J. B.(1990). Peer group behaviou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17-5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 A cross 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9(4), 00. 557-570.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6), 1386-1399.
- Fonzi, A., Schneider, B. H., Tani, F., & Tomada, G., (1997). Predicting children's friendship status from their dynamic interaction in structured situation of potential conflict. *Child Development*, 68(3). 496-506.
- Girolametto, L., Weitzman, E., Greenberg, J. (2004). The effects of verbal support strategies on small-group peer interactions. *Language, Speech, &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5(3), 254-268.
- Hartup, W. W., French, D. C., Lausen, B., Johnston M. K., & Ogawa, J. R.(1953). Conflicts and friendship relation in middle childhood: Behavior in a closed field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4(2), 445-454.
- Hartup, W. W., Glazer, J. A., & Charlesworth, R. (1967). Peer reinforcement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38, 1017-1024.

- Hasen, N. L., & Black, B. (1989). Preschool peer communication skills. The role of social status interaction context, *Child Development*, 60, 867-876.
- Howes, C. (1983). Patterns of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54(4), 1041-1053.
- Hymel, S. (1986). Interpretations of peer behaviour: Affective bia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431-445.
- Ladd, G. W., & Mize, J. (1983). A cognitive social learning model of social skill training. *Psychological Review*, 90, 127-157.
- Landa, R. J. (2005). Assessment of social communication skills in preschoolers. *Mental Retardation &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Reviews*, 11, 247-252.
- Mize, J. (1984). *Enhancing Children's Peer Relations: A cognitive social learning procedure for social skill training with Preschool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 Newcomb, a. f., & Bukowski, W. M. (198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utility of social preference and social impact sociometric classification schemes. *Child Development*, 55(4), 1434-14473.
- Newcomb, A. F., Bukowski, W. M., & Pattee, L. (1993). Children's peer relations : A meta-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13(1), 99-128.
- Park,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utallaz, M. (1983). Predicting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from their behavior. *Child development*, 54. 1417-1426.
- Rubin, K.h., & Mills, R. S. L. (1992). Parents' thoughts about children's socially adaptive and maladaptive behaviors: Stability, chan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si, & J. J. Goodnow(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2nd ed., pp. 47-69).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ubin, K. H. (1980). *Children's Friendship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in berg, L., Silverberg,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7-851.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Trenholm S, Jensen A. (2000). *Interpersonal communication*. NY: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Walkley, A. M (1984).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childre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 curriculum with implications for peace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부 록

- I. 사회성 측정검사
- II. 의사소통능력 검사
- III. 갈등해결전략 검사



질문지

초등학교 6학년 ()반 ()번 이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여러분이 만족스러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 설문지에는 정답이나 틀린 답이 없으며 좋은 답과 나쁜 답도 없습니다. 또한 학교 성적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검사의 결과는 단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누구에게도 알려지 않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고 솔직하게 답해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에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다음 해당하는 부분에 ○표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 신 선 영

주의 사항

- (1) 반드시 같은 반에 있는 친구 중에서만 선택합니다.
- (2) 결석한 친구를 적어도 됩니다.
- (3) 전학 간 친구는 적지 않습니다.
- (4) 서로 의논해서 적지 않습니다.

1. 나는 남학생 (), 여학생()이다.
2. 우리 반에서 자리를 바꾼다면 함께 앉고 싶은 친구 세 명을 쓰세요.
(), (), ()
3. 우리 반에서 자리를 바꾼다면 함께 앉기 싫은 친구 세 명을 쓰세요.
(), (), ()
4. 우리 반에서 내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 세 명을 쓰세요.
(), (), ()
5. 우리 반에서 내 생일에 초대하기 싫은 친구 세 명을 쓰세요.
(), (), ()

의사소통능력 진단지

초등학교 6학년 ()반 ()번 이름()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 의견과 친구의 의견이 다를 때,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1	2	3	4	5
2	친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잘 듣는다	1	2	3	4	5
3	내 의견과 같은 친구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	1	2	3	4	5
4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리한 말만 골라서 듣고 나머지는 무시한다.	1	2	3	4	5
5	친구가 말하는 요점을 알기 위해 이야기 하나 하나에 귀를 기울인다.	1	2	3	4	5
6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고 대화를 한다.	1	2	3	4	5
7	친구의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친구의 기분을 이해하기도 한다.	1	2	3	4	5
8	내가 친구의 기분이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친구에게 말한다.	1	2	3	4	5
9	친구의 말을 들을 때,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듣는다.	1	2	3	4	5
10	선생님이 질문한 내용이 맞는지 알아보려고 내가 들은 내용을 선생님에게 되풀이해서 물어본다.	1	2	3	4	5
11	친구의 질문이 분명하지 않으면,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 본다.	1	2	3	4	5
12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확인해보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1	2	3	4	5
13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을 짓는다.	1	2	3	4	5
14	친구의 말에 대해 내 경우는 어떠했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해준다.	1	2	3	4	5
15	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친구가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에 따라서 말하는 표현방식이 다르다.	1	2	3	4	5
16	나는 친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에 따라서 차별하며 이야기를 한다.	1	2	3	4	5
17	나는 머리를 염색하거나 옷 차림이 이상한 아이들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1	2	3	4	5
18	대부분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다른 친구의 생각은 잘 듣지 않는다.	1	2	3	4	5
19	어른의 말씨는 대개 옳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무조건 그렇다고 동의를 한다.	1	2	3	4	5
20	공부 못하던 친구가 시험을 잘 보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컨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1	외모가 잘 생긴 남자나 여자 친구에게는 친절하게 말한다.	1	2	3	4	5
22	친한 친구가 아니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한다.	1	2	3	4	5
23	어른과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예의를 갖추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말한다.	1	2	3	4	5
24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의 의견도 잘 듣는다.	1	2	3	4	5
25	공부를 잘 하는 친구가 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옳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인다.	1	2	3	4	5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26	여러 방향으로 이야기 주제를 생각하기보다 한 가지 방향으로만 생각한다.	1	2	3	4	5
27	친구들과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한다.	1	2	3	4	5
28	친구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1	2	3	4	5
29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1	2	3	4	5
30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는 데” 라고 분명히 말한다.	1	2	3	4	5
31	나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친구의 충고를 들으려고 한다.	1	2	3	4	5
32	친한 친구이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준다.	1	2	3	4	5
33	평소에 나를 어떻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모님께 털어 놓는다.	1	2	3	4	5
34	내가 싫어하는 친구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다.	1	2	3	4	5
35	친구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만큼만 나도 친구에게 나의 속마음을 드러낸다.	1	2	3	4	5
36	내가 다른 친구에게 말할 것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 한다.	1	2	3	4	5
37	학교나 학원에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나를 소개한다.	1	2	3	4	5
38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생각하여 두었다가 기회가 되면 말한다.	1	2	3	4	5
39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친구에게 잘 전달하기 위하여 말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1	2	3	4	5
40	어른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조리 있고 분명하게 나의 의견을 말한다.	1	2	3	4	5
41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내가 준비한 과제물을 망설이지 않고 발표한다.	1	2	3	4	5
42	수업시간에 궁금하였던 것을 정확한 답을 알 때까지 몇 번이고 선생님께 질문한다.	1	2	3	4	5
43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말이나 몸짓으로 드러내 보인다.	1	2	3	4	5
44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본다.	1	2	3	4	5
45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46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친구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물어 본다.	1	2	3	4	5
47	내가 한 말을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면서 대화한다.	1	2	3	4	5
48	친구한테 짜증스럽게 말하면 그 친구가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하며 말한다.	1	2	3	4	5
49	친구가 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1	2	3	4	5

☼ 성실하게 답을 해 줘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초등학교 6학년 ()반 ()번 이름()

☞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을 생각하며, 표를 해 봅시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친구와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를 때,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고 한다.	1	2	3	4	5
2	친구와 나 사이에 기분 좋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3	친구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	1	2	3	4	5
4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을 친구의 생각에 맞춘다.	1	2	3	4	5
5	친구와 나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방법을 찾으려 한다.	1	2	3	4	5
6	나는 서로 다름을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1	2	3	4	5
7	친구가 내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8	만약 친구가 자기 의견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친구가 하자는 대로 한다.	1	2	3	4	5
9	친구와 말다툼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1	2	3	4	5
10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와 같이 의논한다.	1	2	3	4	5
11	친구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주장을 강력히 밀고 나간다.	1	2	3	4	5
12	친구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친구가 하고 싶은 쪽으로 내 생각을 바꾼다.	1	2	3	4	5
13	친구와 내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의견은 나중에 미룬다.	1	2	3	4	5
14	우리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모두 말한다.	1	2	3	4	5
15	친구가 내 생각을 받아 들이도록 끝까지 노력한다.	1	2	3	4	5
16	처음에는 친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친구가 원하는 쪽으로 내 생각을 조절한다.	1	2	3	4	5